

검열의 시대 '표현의 자유' 주창... 연극계 거장 박조열 삶·작품 조명

극작가 박조열의 삶과 그의 대표 희곡 '오장군의 발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아카이브 전시와 낭독 공연이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11일 아시아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박조열과 오장군의 발톱' 전시를 개막한다. 전시에서는 2015년 별세한 고 박조열 작가가 ACC에 기증한 기록물을 만나볼 수 있다. '오장군의 발톱', '토끼와 포수' 등 희곡 초고를 비롯한 각종 저술과 다수의 공연 기록물을 내년 3월23일까지 선보인다.

●ACC아카이브 전시 '박조열과 오장군의 발톱'

희곡 초고·저술·공연 기록물 등 선보

11일 개막식서 국립극단 낭독공연도

박조열(1930~2016)은 함경남도 함주군 출신으로 흥남 철수 작전 때 월남해 13년 간 군인으로 복무하고 예편 이후에는 극작가로 활동했다.

박 작가의 대표 희곡 '오장군의 발톱(1974)'에는 6·25전쟁과 남북 이산가족이라는 개인적 경험이 담겨있다. 냉전 체제의 심화와 반공 이념이 강조된 시기, 전쟁과 군대를 소재로 한 이 작품은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됐다.

'오장군의 발톱'은 집필 다음 해인 1975년 극단 자유극장의 초연을 볼까 며칠 앞두고 검열기구의 '공연 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14년이 1988년에야 극단 미추에 의해 초연됐다. 이 공연은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 작품상, 연출상, 희곡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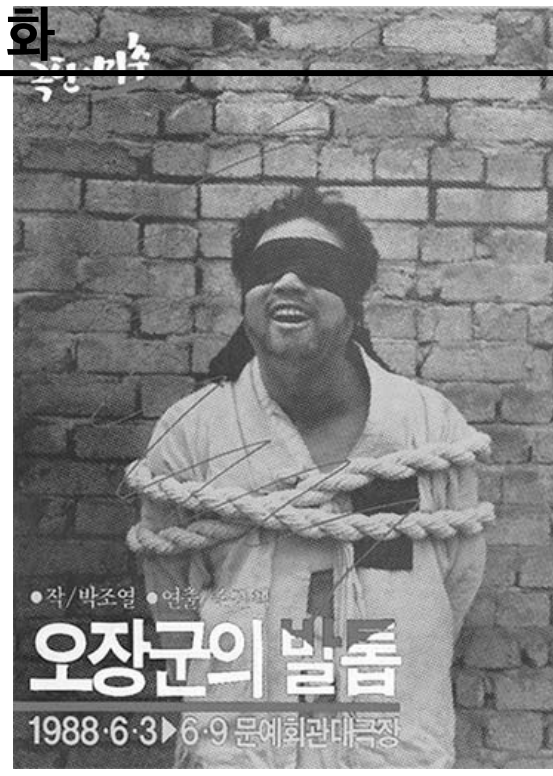
특히 박 작가는 지방 연극계의 도입, 한일 간 연극 교류, 창작극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연극 대본 사전 규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며 '표현의 자유' 운동을 주도해 연극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전시에서는 박조열의 삶과 그의 대표작 '오장군의 발톱'을 집중 조명함과 동시에 1960~1970년대 공연계 상황과 이에 대응한 박조열의 활동을 소장 기록물로 살펴볼 수 있다.

전시는 국립극단과 아르코예술기록원 등 공연문화예술아카이브네트워크협의체(K-PAAN)의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

아르코예술기록원은 이번 전시를 위해 당시 검열기구에 접수된 '오장군의 발톱' 심의 대본과 구술 기록물을 제공했으며, 국립극단은 '오장군의 발톱' 낭독회 공연(연출 신재훈, 음악 이소호)을 전시 개막일인 오는 11일 ACC 극장3에서 선보인다. 낭독 공연 예매는 ACC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다.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전시는 소장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외부 기관과 협력으로 이뤄진 뜻깊은 전시"라면서 "전시와 낭독 공연을 통해 박조열 선생의 삶과 그의 대표작 '오장군의 발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극단 미추의 '오장군의 발톱' 공연 초연 모습

한편 ACC는 2015년부터 '아시아 소극장 운동'을 중심으로 공연예술 분야 아카이브를 구축해왔다. 소극장 운동 발흥기에 활동했던 극작가 박조열을 비롯해 연극학자 이두현, 연극단체 산울림의 기록물을 수집, 정리했다.

/최명진 기자



광주시립합창단이 들려주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12일 빛고을시민문화관...종교 초월 감동 선사

연말을 맞이해 따스한 감동을 선사하는 오라토리오 공연이 마련됐다.

오는 12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광주시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 헨델 오라토리오 '메시아'다.

오라토리오의 성악의 일종으로 성경이나 기타 종교의 경전 등을 바탕으로 만든 서사적인 대규모 악곡을 의미한다.

이번 공연은 세계 3대 오라토리오 중 하나인 헨델의 '메시아'를 통해 종교를 초월한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헨델의 '메시아'는 총 3부 53곡으로 이뤄진 대작이다. 1부 '예언과 탄생', 2부 '수난과 속죄', 3부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연에는 임창은 상임지휘자를 필두로 광주시립합창단(사진)을 비롯해 소프라노 김제니, 알토 김선정, 테너 진철민, 베이스 김대수, 오르가니스트&첼리스트 아렌트 호르스펠트, 오케스트라 카메라티전남이 함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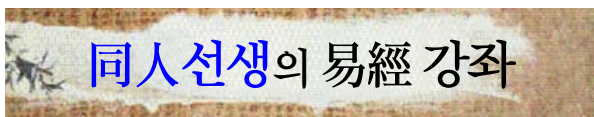
한편 공연 입장료는 전석 1만원으로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구사(震用伐貴邦), 육오(君子之光有孚吉), 상구(濡其首有孚失是)"

진용벌귀방

군자지광유부길

유기수유부실시



<224>육십사괘해설 : 64. 화수미제(火水未濟) 하

미제괘 구사의 효사는 '정길 회망, 진용벌귀방 삼년유상 우대국(貞吉 悔亡, 震用伐貴邦 三年有賞于大國)이다. 즉, '정도를 지키면 길하고 회한이 사라진다. 귀방을 정벌하러 나아가 삼년 만에 승리해 대국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뜻이다.

미제지몽(未濟之蒙 四動)	사효는 음위에 양효로 그 위가 부정해 후회스러운 일이 생기나 밝음의 이괘(離卦)로 들어와 상황이 극복돼 후회함이 없는 과정을 효사는 묘사하고 있다.
화수미제	산수몽

상전에서는 '정도를 지키면 길하고 회한이 사라진다'는 것은 뜻이 행해진 것'이라고 해 '정길회망 지행야(貞吉 悔亡 志行也)라고 말했다. 이때 써워서 이긴다. 구사는 미제 중의 미제의 시기를 지나 미제 중의 기제의 때로 들어서는 시기이다.

큰 나라와 거래를 통해서 성취하고 지금까지 고생해오던 일들이 이뤄진다.

외괘로 진입해 미제 중에 기제가 돌아올 때이다. 이 시기에 성취하게 되니 초조해 하지 말고 준비 노력하면서 굳은 마음으로 기회를 기다리면 드디어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미제의 후회를 없애고 길(吉)에 도달하게 된다.

기제의 구상에서도 '벌귀방'이라 해 병과(兵戈)를 썼던 것은 태평한 시대의 게으르고 나태함을 해소하기 위한 소극책이었지만 미제의 구사 '벌귀방'은 미제의 폐색 곤고(閉塞 困苦)함을 타개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삼년유상우대국'이라는 효사를 달아 전쟁을 끝내고 상을 준다고 해 이를 강조했다.

은(殷)나라의 고종(高宗)이 귀방을 칠 때 '진(震)이라는 제후를 등용해 귀방을 쳤다고 해 '진용(震用)이라는 효사가 전해지지만, 미제 구사는 이(離)의 아래 호(火)에 있어 화력(火力)이 약하기 때문에 '분발 진출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점사에서 입서하여 구사를 얻으면, 지금까지 축적한 지식과 자력(實力), 재능(才能)과 경험을 발휘해 크게 일해야 할 때다. 급공(急功)하거나 요행(僥倖)을 바라면 완전 실패로 끝난다.

운기, 운세는 오랫동안의 고생이 끝나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때이지만 방심(放心)하면 수포로 돌아가니 힘껏 노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업, 거래 등도 이득이 있고 경쟁상대를 이겨 효과가

나타나므로 협력자에게 예(禮)를 다해야 한다. 원하는 바람 등도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성취한다.

교섭, 담판 등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좋은 결과가 있고 다른 사람, 특히 손익사람의 이성의 협력을 얻어 이득이 있다. 거소(居所)는 동쪽이나 동북방으로 이전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다. 여행이나 외출은 나아가서 이득을 보나 예정보다 늦게 돌아온다. 물가는 정체해 있던 것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하락했던 것이 원래로 돌아온다.

혼인에 있어서는 연애나 혼담의 상태는 모두 좋지 않으나 이때 영겨있던 관계가 확실해진다. 임태는 늦어지는 기미가 있으나 옥(玉)같은 아이를 낳고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던 산모에게 하늘의 은총이 있다. 병은 오랜 병은 점차 나아지고 급병은 악화될 우려가 있다.

기다리는 것은 늦어지지만 소식은 있고 기다리다 지칠 때쯤 근심이 풀린다. 가솔인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나갔고 나간 곳에서 성공하여 금의환향(錦衣還鄉)할 마음을 먹고 있다. 분실물은 찾기 어려우나 변한 것이 손에 들어올 수 있다.

'실점'에서 구사를 만나면, 미제 해괘 삼효는 일이 이뤄지지 않을 때이고 상괘 삼효는 일이 완성돼 가는 때이다. 구사에서 지금까지의 고생이 결실을 맺고 기쁨을 얻으며 상을 받는다. 상괘의 사 오 상효에서는 돈 많이 벌고 무엇인가를 얼마만큼 얻는 때이다.

미제괘 육오의 효사는 '정길 무회, 군자지광유부길(貞吉 无悔, 君子之光有孚 吉)이다. 즉, '정도를 지키니 상스럽고 회한이 없다. 군자의 빛남이 진실함이 있고 길하다.'는 뜻이다.

미제지몽(未濟之訟 五動)	오효는 양위에 음효로 그 위가 정(正)하지는 않지만 이괘(離卦)의 주효로서 준위의 중(中)을 얻고 있으며 하괘 구이의 강중의 신화와 음양상응하고 구사의 총직한 대신과 친비해 문명의 빛을 발휘하고 있다. 상전에서 '군자의 빛남이 진실함이 있다는 것은 천하를 비추는 길함'이라고 해 '군자지광 기귀길야(君子之光 其輝吉也)라고 말했다. 나라가 세워지는 성운의 때로 인내를 가지고 밀고 나가면 일을 성공시킨다.
화수미제	산수송

육오는 이미 미제중의 기제로 어려움이 끝나는 데에 있어서 같은 정길인데 구사에서는 '회망'이라 했고 육오에서는 '무회'라고 표현했다. 육오는 이명(離明)의 군주로서 구이의 응(應)이 있고 구사의 비(比)가 있으며 유중(柔中)의 덕은 군자의 빛으로 이 빛을 발휘해서 미제가 쇠퇴한 것을 만회한 것이다. 유부는 이양(二陽)중의 일음(一陰)을 진심으로 본 것이다. 이때는 성운(盛運)의 때로 나라가 세워진다.

점사에서 서쪽을 들어 육오를 만나면, 미제의 어려움이 풀리는 때로 주변 사람의 협력에 의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직접 나서기 보다는 다른 사람 믿고 맡겨두면 문제가 해결된다.

운기, 운세, 사업, 거래, 교섭, 담판, 바람 등은 주변의 유력자의 도움을 받아 순조롭게 진행돼 뜻을 이룬다. 이전도 길하다. 혼인 역시 주위 사람과 인연있고 임태도 평안하며 순산이다. 병은 원인이 밝혀지고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쾌차한다. 물가는 높다. 기다리는 사람과 가솔인은 곧 오고 분실물은 좋은 상태로 발견된다. 낱새는 맑고 쾌청하다. 맑은 날은 이제 변화기 시작한다.

'실점'에서 미제 육오를 만나면 발전이 계속되고 일이 성사되는 성운(成運)의 시기이다. 인물됨을 보아 육오를 얻으면 인격과 인품은 훌륭하고 사람 관계에서 성실성의 기가 있으며 지위가 높고 빛나는 위치에 있는 군자인 사람이다.

상구의 효사는 '유부유우중 무구, 유기수 유부실시(有孚于飲酒 无咎, 濡其首有孚失是)라 한다. 즉, '민음을 갖고 술을 마시면 허물이 없지만, 음주에 탐닉해 머리를 물에 적시듯 지나치면 민음을 잃는다'는 뜻이다.

미제지해(未濟之解 上動)	상효는 이명(離明)의 최상위인 음위에 양효가 있다. 위가 바르지 않은 미제의 종극에서 384회가 끝나지 않는 순환의 증언을 음주와 절제로서 고(告)하고 있다.
화수미제	산수해

상전에서는 '음주에 탐닉하여 머리를 물에 적시듯 지나치는 것은 또한 절제할 줄 모른다는 것'이라고 해 '음주 유수 역불지절야(飲酒 濡首 亦不知節也)라고 말했다. 이때는 항상 긴장되는 상황으로 완벽함이 무너지는 때이다. 상효에서는 일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

상구는 폐가 끝나는 데에 있어서 미제가 완전히 기제의 성취를 얻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진심으로 기쁨을 축하하고 잔치를 열어 축배의 잔을 가득 채우며 서로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라면 음주도 굳이 허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제를 얻었던 기쁨에 빠져 술에 취해 자신을 잃어버리면 마치 강 건너는 것을 끝냈던 여우가 머리를 적서 버리는 것과 같다. 이리해 마침내 얻었던 좋은 성과를 금방 잃어 버리고 다시 옛날의 미제에 빠지게 되고 만다. 이를 상전에서 '역불지절야(亦不知節也)라 한 것이다.

점사에서 서쪽을 들어 상구를 얻으면, 지금까지 고생했을 때의 마음과 각오가 풀려서 오히려 실패를 크게 하므로 이를 경계해야 할 때이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건해야 하고 욕심에 빠지지 말아야 하며 교만하지 말아야 안태(安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운기, 운세는 일을 끝냈다는 안심과 태만에서 병이나 거나, 쓸데없는 일에 빠지거나 이성이나 음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킬 때이니 엄청난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이나 계획 등이 달성됐다고 또 다른 야망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일에 손을 대어 건들여 보는 식의 들뜬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몸을 망치는 원인이 된다. 지망 등 바라는 바는 이미 얻은 시점이므로 이에 만족해야 한다. 더 언저로 나아가면 대패(大敗)를 당한다. 교섭, 담판 등이 순조로이 진행돼 원만히 해결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활약한 사태를 야기하거나 음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전은 보류해야 하고 지금의 집으로 만족해야 한다. 여행에서 주색(酒色)을 삼가고 물가를 조심해야 한다.

혼인은 처음은 상당히 좋고 나중에는 나쁘다. 이미 이 야기가 성사된 것은 길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진행될 것은 흉하다. 임태는 무사하나 산후(産後)에 주의해야 하고 특히 출산 축하연 등에서 너무 기뻐 술을 너무 마시는 등 후환을 남기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 병은 치료를 속히 하지 않으면 항진(亢進)하고 약의 섭취와 치료 등은 정도(正道)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다리는 것은 오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다. 가솔인은 희노애락(喜怒哀樂)이 지나쳐 흥분하기 쉬운 사람이고 술자리 등에서 발견되거나 익사(溺死)의 우려가 있다. 분실물은 취중(醉中)에 유실(遺失)되었거나 하여 찾기 힘들다.

'실점'에서 상구를 얻으면, 지금은 그동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공로가 있어 한직(閑職)에 머무르면서 웅숭한 대접을 받고 심신(心神)을 휴식해야 할 때다. 이때 음주로 인한 주벽(酒癖) 등으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도록 가장 조심해야 한다.

'실점'에서 '미국 이민 가능여하'를 입서해 미제괘 상구를 얻었다. '미제괘는 바다 위에 태양이 떠 있는 상으로 아직 미제괘이니 이민을 떠나지 못한 모습이다. 이제 상효 통해 이화(離火)의 문서, 여권 비자가 진뢰의 천둥, 우레, 광음의 소리를 내며 날오는 비행기로 변했으니, 약 10일 후 이달 말 경이나 60일 안에는 미국으로 출발하게 된다'고 점고했다. 결과인 즉, 10일 후 정확히 그러했다.

(동인·도시계획학 박사)

[동인선생 강좌 개설 안내(062-654-4272)]

○개설과목(2) : 명리사주학, 역경해설, 매주 토·일 각 4시간, 1년 과정
○기초이론부터 최고수준까지 직업전문가 양성, 2025년 1월 초 개강

